

월간 실적보고

2016.10

Summary of 2016 Oct

1.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**26.1%** 성장
 -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(입장권, Pass 등)을 합산한 수치
2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15.2%** 성장
 - 패키지 **10.4%** / 티켓 **23.4%** YOY 성장 (11.8만명 / 7.8만명)
3. 남태평양 **42.9%** , 미주 **38.5%** , 중국 **21.1%** , 동남아 **3.4%**
 - 장거리 : 미주 **9**개월, 남태평양 **8**개월 연속 **두 자릿수** 성장률
 - 단거리 : 중국 **5**개월 연속 **두 자릿수** 성장률

10월 Review :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성장률 26.1%

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성장 15.2%, 송객인원 19.7만명.

패키지 성장률 10.4%, 송객인원 11.8만.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. 전년보다 길었던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예약이 9월로 많이 흡수되고 동계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인 성장 속도가 다소 느려짐. 하지만 점차 회복되는 패키지 수요로 인해 두 자릿수 성장 지속.

티켓 성장률 23.4%, 송객인원 7.8만. 2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 지속.

10월 실적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6	118,719	78,879	197,598
2015	107,562	63,920	171,487
YOY	10.4%	23.4%	15.2%

패키지 YoY : 8월 10.1% → 9월 20.1% → 10월 10.4%

티켓 YoY : 8월 30.6% → 9월 41.8% → 10월 23.4%

총송객 YoY : 8월 18.2% → 9월 28.8% → 10월 15.2%

지역별 성장 (YoY)

10월 지역별 인원 성장률 남태평양 42.9% , 미주 38.5% , 중국 21.1% , 동남아 3.4%

남태평양 +42.9%, 미주 +38.5%. 두 지역은 3개 분기 동안 두 자릿수 성장 지속하며 유럽 대체 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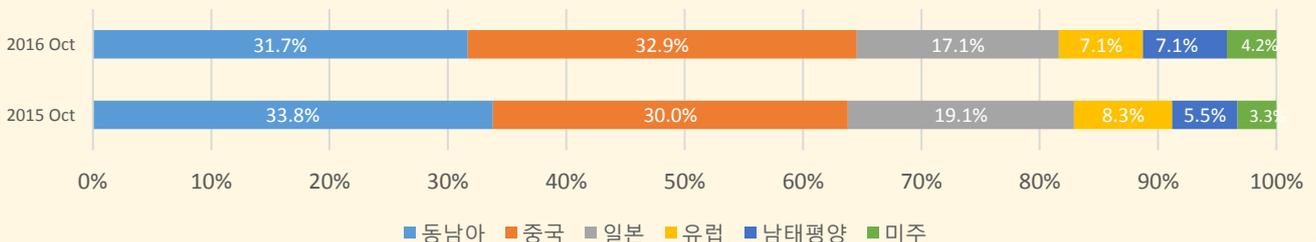
중국 +21.1%. 작년 10월 23% YoY 성장. 작년의 높은 성장성 불구, 21% YoY 성장.

동남아 +3.4%. 태국 국왕 서거 애도기간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 성장 속도 소폭 둔화.

유럽 -5.2%, 일본 -1.6%. 겨울 비수기에 들면서 한 자릿수 역성장.

9월의 추석연휴로 인해 영업일수가 짧았다는 점과 비수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10월 성장에 영향을 주었지만, 그간 성장을 주도해온 3개 지역 (남태평양, 미주, 중국)이 10월에도 여전히 성장 주도하며 두 자릿수 성장 지속.

인원 비중



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명, %)

	16년 11월	16년 12월	17년 1월
증감률	17.9%	12.7%	35.1%

* 2016.10.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

16년 11월, 12월 두 자릿수 예약률로 9월 말 시점 대비 상승. 부진했던 일본과 유럽의 회복 기대 가능.

17년 1월의 좋은 예약률은, 패키지 수요의 회복, 성수기 도래, 전년 기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.

16년 4분기의 볼륨 성장은 지역별 악재가 상존함에도 두 자릿수 성장 중. 이는 패키지 수요 회복이 지속 되기 때문으로 보이며, 17년 상반기의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게 할 만한 상황.